

“이홍하 보석 ... 내부 반성 있었느냐” 질타

광주 법원·검찰 국정감사

‘5·18 왜곡’ 수사 지체되는 이유 뭐냐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점유 질타 수영선수권 보증서 위조 선처 당부도

23일 오전 광주고법 및 광주·전주·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보석 허가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집행유예 선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민주당 박지원·박법계 의원 등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한 선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시작된 광주고검 및 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18 왜곡·편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로비 리스트 관련 수사 여부 ▲광주지검의 지나치게 높은 구속부심 석방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원청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를 무겁게 처벌하기보다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부터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보석 허가 의와 그 배경으로 지목된 지역법관제도 역시 거론됐다. 박법계 의원은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이씨를 병보석으로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공요금에도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이씨는 지난 1998년, 2007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번에도 재판·보석 등 단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법원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동안 내부 반성이 있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23일 오전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우 광주고법원장 직무대리 등 피감기관장들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위). 아래는 23일 오후 3시30분을 넘겨 시작된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광주고검장 등이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고법 및 광주·전주·제주지법 =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한 선처를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여러 법관께서는 호남인들의 아픔을 잘 알 것”이라며 “수영대회에 대한 재판은 광주 시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호남인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판결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6명의 사망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게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과실, 반성, 피해 보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10명, 20명이 죽어도 그럴 것이냐”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야까운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을 막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광주고검 및 광주·전주·제주지검 =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의원의 5·18 왜곡·편파 사건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고소·고발이 붙어 이뤄졌는데 곧 눈이 오게 생겼다”며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수사도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춘석 의원 역시 “5·18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퇴색하고 광주주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은 어느 집단이 집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광주지검장은 “처음부터 신속히 수사하도록 쟁겨 보고 있으며 일부 출석 불응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지체하지는 않았다”며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검은 혐의가 있는 10명 가운데 일부에 대한 수사를 주저지 관찰

검찰청에 촉탁했으며, 이들은 진술 내용 등이 광주지검에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된다.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횡령 사건은 광주고검 등의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홍하 리스트’에 교육계, 검·경에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이 있고 횡령액 중 12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만4988명 가운데 4678명(31.2%)이 석방됐는데, 광주지검의 경우 1753명 중 39.1%인 685명이 풀리나 석방률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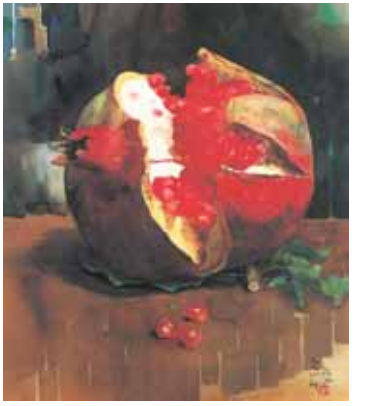
‘빠개 져힌 가슴’ 사이 보석처럼 빛나는 석류알



(49) 석류

“부푼 나의 얼굴/투명한 나의 입술//알알이 붉은 뜻을/내가 어이 트리라//보소라/입아 보소라/빠개 져힌 이 가슴” <조운 작 ‘석류’중에서>

지구 온난화 탓인지 시절 중순이 되어서야 여름의 끝을 지나 가을을 맞이한다. 얇아진 햇살, 청량한 바람, 노랗게 물들어가는 중외공원의 나뭇잎들... 무엇보다 아파트 입구에 할머니들이 시골집에서 막 따왔을 성 싯은 석류, 모과, 홍시들을 퍼놓은 좌판에서 가을을 만난다. 한 알의 석류를 보니 한 편의 시와 한편의 그림이 떠오른다.



강연균 작 ‘석류’(1991년)

영광에서 태어나 투철한 민족의식으로 우리 언어와 우리 정서로 우리 시조를 써온 조운(1900~?)의 ‘석류’는 과묵한 내겐 가장 열렬한 사랑 고백의 시로 여겨진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가슴을 빠개 져뜨거운 심장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강연균 화백(1941~)의 수채화 ‘석류’(1991년작)는 조운의 시조에 등장한 석류가 알알이 영롱하게 묘사되어 있다. 30호 크기의 화폭에 석류 한 알을 화면 가득 확대하니 조그마한 석류알이 지구처럼 우주처럼 거대하게 다가와 시선을 압도

한다. 강화백은 “조운 시인의 시조를 접한후 가졌던 감동, 석류가 가지고 있는 회화적 조형적 응축미, 전위적인 느낌을 폭발적으로 보여 주려 했던 것”이라고 20여년 전 작업시절을 회상했다. 색채의 새로운 미의식과 실험적인 조형성으로 늘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강화백의 수채화는 특히 그 이전의 정물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과, 대광주리, 호박 등 정물의 대상을 투숙적이고도 향토적인 범위로 확장해 언제나 선구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루도 그림 그리지 않은 날이 없는’ 강 화백을 만나러 소태동 화실을 찾은 날, 얼마전 말바우시장에서 구해 온 석류 한 소쿠리가 화면에 반쯤 옮겨져 있었다. 석류 한 알이 ‘빠개 져졌던 가슴’ 사이로 보석 같이 영롱하게 반짝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점심 먹고 소쇄원 유람 ... 지각하고 즐기고 스마트폰 검색 질의 않고 강론·호통 ... 4곳 감사 고작 80분만에 ‘푹푹’

부실 국감 한심한 의원들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1시간33분이 지나서야 시작했다. 국감 의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담양 소쇄원을 ‘유람’하고 뒤늦게 국감장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감사반장은 “늦은 시작”을 의식해 의원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개회를 선언했다.

#담양 예정시간보다 30여 분 늦게 시작된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논란이 됐다. 한 의원은 법원장들의 업무보고

시간에 눈을 감고 즐기고, 일부 의원은 스마트폰 검색에 열중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원은 질의시간 7분 동안 ‘질의’ 없이 ‘강론’을 해 눈총을 샀다.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높다. 피감기관들은 답변서를 준비하느라 한 달 이상 매달렸지만, 정작 국감에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나가 허탈해 하기까지 했다.

개회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질문이 중복되는 등의 기존 국감의 문제점을 반복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만이 질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준비도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감은 오전 10시32분 개회했다. 의원들이 착석한 뒤 광주고등법원장을 시작으로 각 지법원장의 인사말·간부 소개·업무보고가 끝난 시간은 11시9분께.

이후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질의의 대부분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다. 이미 언론지상에 다룬 사안들이어서 의원과 피감기관 간의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피감기관장의 답변도 “맞는 말씀이다”, “유념하겠다”, “자제적으로 논의를 처리하겠다”는 등 형식적이었다.

한 의원은 법원장들에게 “이 지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가 급히 다른 질문으로 바꾸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실형을 쥐어준다”, “법정 최고형으로 경중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것은 12시35분께로, 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 시간은 고작 1시간 20여분에 불과했다.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5·18 역사왜곡 사건 지지부진 등 일부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었다. 3시33분에 시작된 오후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도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끝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종두

대선개입 파문

조용~

광

파리

전지가 요동을 쳐도 나몰라라

새로운 코란도C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korando C

NEW 코란도C 더 즐겁게 탄생

강력적 인터리어 LED 포지셔닝 램프 LED 리어 콤비램프

구입 문의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 971-0990 · 광주중앙 655-4001 · 동광주 515-1900
전남권 | 순천 745-3666 · 순천중앙 723-7100 · 신여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 · 무안 454-0099 ·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 나주 334-2727 · 강진 433-3100 · 해남 537-3100 · 담양 383-5811 · 장성 395-0007 · 원도 · 554-4545
영광 353-9500 · 고흥 835-5050 · 여천 685-4800 · 보성 852-2892 · 광양 761-8900 · 동광양 791-0071

쌍용자동차와 미래를 함께 할 쌍용가족을 모집합니다

- 판매수수료+인센티브+정착지원금 - 매월 판촉활동 지원금 추가지급 - 판매 우수자 해외모터쇼 참관 - [공고/접수] www.smotorecruit.co.kr